

석유 현물거래소 2012년 4월 출범

석유 현물거래소가 2012년 4월 출범할 예정이다.

한국거래소는 2012년 4월 출범을 목표로 석유 현물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월24일 밝혔다.

한국거래소는 “수요자와 공급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세제 등 제반요건을 조성하다보니 출범시기가 늦추어졌다”고 밝혔다.

지식경제부는 4월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에서 석유 현물거래소와 온라인시장 설립을 포함시킨 바 있다.

석유 온라인시장이 출범하면 정유기업, 대리점, 주유소 등은 전자거래 시스템으로 석유제품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게 되며, 석유 현물시장이 정착되면 선물시장 개설도 추진될 예정이다.

한국거래소 관계자는 “선물시장은 현물시장의 가격 형성 메커니즘이 정착돼야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출범시기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”라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11/25>